

곽분양(郭汾陽) 연구

- 고전문화 속의 인물 읽기 -

최경환*

<차례>

1. 서론
2. '곽분양과 <곽분양전>
 - 2.1. 곽분양의 전기
 - 2.2. <곽분양전>의 이본
3. '곽분양' 소재의 확산과 변화
 - 3.1. 역사기록 속의 곽분양
 - 3.2. 회화 속의 곽분양
 - 3.3. 소설 속의 곽분양
 - 3.4. 신문기사 속의 곽분양
4. 결론

<국문초록>

이 글은 중국 당대(唐代)의 무장(武將)이었던 곽분양(郭子儀 697년~781년)이 조선시대 문화에서 재현되는 다양한 양상을 검토한 글이다. '곽분양'은 역사기록물인 왕조실록에서 허구적인 서사물에 이르기까지, 가사나 시조와 같은 문학 장르에서 궁중화나 민화와 같은 회화 장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산재되어 있는 인물 소재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15세기에서 20세기 초반까지 곽분양과 관련된 자료를 검토함으로써, 조선시대 문화에서 곽분양이라는 인물이 함축하는 문화적 의미를 재구성해 보았다.

주제어 곽분양, 곽분양행락도, 인물모델, 백자천손, 왕조실록

* 국민대학교 교양과정부 조교수

1. 서론

소설 속의 인물은 서사체의 이야기단위처럼 특수한 주제를 발현할 수 있다. 그리고 특정 인물이 함축하는 주제적 요소는 역으로 소설의 서사구조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소설 속의 인물은 언제나 특수한 가치체계를 표상한다. 인물이 추구하는 대상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물질적인 가치나 윤리적인 규범이 생성되고, 이 가치체계는 전체 서사의 의미론적 모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물은 서사물의 주제와 구조를 생성시키는 구성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 소설 창작과정에 개입되는 경우, 그 인물 역시 전체 서사구조의 일부가 될 수 있다. 특히 인물에 대한 품평이 정형화되어 있는 경우, 그 인물이 표방하는 가치체계와 세계관은 소설의 주제적 요소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특정 인물이 함축하는 의미소가 쉽게 변형되지 않는 안정적인 형태로 존재할 경우, 그 인물은 자생적인 확산력을 가지고 다른 영역과 장르로 변저 나갈 수 있다. 중국 당대(唐代)의 실존인물인 곽분양은 이러한 과정을 잘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곽분양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사는 『삼국사기』(1145년) 권 제44 열전 제4 <장보고> 편에 실려 있는 내용이다. 문헌으로 기록되기까지의 시간적 경과를 감안할 때, 8세기 중국 인물인 곽분양은 12세기 이전에 이미 우리 문화 속에서 소통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곽분양’이라는 인물 소재가 20세기 초반의 기록물에서도 확인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인물 소재의 전승력은 대략 10세기 동안 지속될 만큼 강력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곽분양의 전기적 일대기를 다룬 다양한 서사물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

지만, 우리 문화 곳곳에 편재되어 있는 이 인물 소재에 주목해야 하는 일차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 글에서는 ‘곽분양’이 인용되는 문맥, 즉 다양한 언술과 장르 속에서 곽분양을 소재로 사용하는 주제적 의도를 검토함으로써 곽분양 소재의 전승 원인을 규명해 볼 것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곽분양이라는 인물 소재가 약호화되는 방식과 그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도 논의해 볼 것이다.

15세기 초반부터 17세기 후반까지의 문헌 기록에서 곽분양이 인용되는 문맥은 주로 그의 역사적 행적과 관련된 것들이다. 당대(唐代)의 무장(武將) 곽분양의 행적이 직접 인용되면서 조선시대의 특수한 상황과 대비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그러나 18세기를 지나면서 이러한 수용 양상은 곽분양이라는 인물이 함축하는 상징적 의미가 강화되는 양상으로 변화된다. 그리고 이 상징적 의미는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다양한 영역과 장르로 광범위하게 확산된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곽분양’이라는 인물 소재의 공시적인 확산과 통시적인 변화 과정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검토할 것이다.

2. ‘곽분양’과 〈곽분양전〉

2.1. 곽분양의 전기

곽분양은 당(唐)나라 때의 명장으로, 벼슬이 태위중서령(太尉中書令)에 이르고 분양군왕(汾陽郡王)에 봉해진 곽자의(郭子儀 697~781)를 말한다. 당 현종 때 삭방절도사(朔方節度使)로서 안녹산·사사명의 난을 평정한 뒤, 그 공으로 분양왕에 봉해졌으며 회홀과 손잡고 토변을 정벌한 인물이기도 하다. 『舊唐書』 권120에 실려 있는 〈郭子儀傳〉의 내용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괘분양은 화주(華州) 정현(鄭縣) 사람으로 키가 6척이 넘는 걸출한 인물이다.
- (2) 무과에 등제하여 749년에 안북도호부의 좌위대장군, 754년에 삭방절도사 우병마사가 된다.
- (3) 현종 천보14년 안록산의 난(755년)이 일어나자 하동절도사 이광필과 함께 토벌에 종군한다.
- (4) 숙종 즉위 후 부원수가 되어 장안과 낙양을 회복하고 중서령에 제수된다(756년).
- (5) 어조은에 의해 실각되었으나 하중에서 일어난 군란을 진압(760년)하고 분양왕에 책봉된다.
- (6) 복고회은이 회홀·토번과 함께 장안을 치려하자 괘분양이 회홀을 회유하여 토번을 물리친다.¹⁾
- (7) 화주절도사 주지광의 반란을 진압하고(766년) 입조하자 괘분양을 위한 연회가 배설된다.
- (8) 괘분양은 85세의 나이로 죽고(781년) 이를 슬퍼한 덕종은 5일간 정사를 폐한다.
- (9) 괘분양은 아들 8명과 사위 7명을 두었으며 이들 모두 조정의 중신이 되었다.
- (10) 손자들이 많아 문안을 올릴 때면 일일이 알아보지 못해 턱을 끄덕였을 뿐이라고 전한다.
- (11) 괘분양의 아들 괘애는 승평공주를 아내로 맞았으며, 그의 딸은 현종의 왕비가 되어 왕자를 낳았는데 그가 穆宗皇帝(820~824)이다.

1) 子儀以數十騎徐出，免胄而勞之曰：安乎？久同忠義，何至於此！回紇皆捨兵下馬，齊拜曰：果吾父也。子儀召其首領，各飲之酒，與之羅錦，歡言如初……吐蕃知其謀，是夜奔退。回紇如元光追之，子儀大軍繼其後，大破吐蕃十餘萬。『舊唐書』권120, 제70 <郭子儀傳>.

곽분양의 일대기에서 3~7단락은 실존 인물인 곽분양이 武將으로서 수행한 역사적 사실이다. 물론 <곽분양전>이 곽분양의 탄생과 행적에 초현실적인 요소를 부가함으로써 곽분양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허구화하고 있다는 점²⁾은 이미 논의된 바 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금향정기>와 같이 <곽분양전>과 시공간적 배경을 같이하는 소설을 제외하고는, ‘곽분양’이라는 실존인물이 소재로 활용되는 다른 소설의 경우, 대부분 단락6과 단락9,10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락 9,10은 ‘곽분양’이 인용되는 대부분의 소설에서 발견되며, 단락6은 주인공의 행적에 군담이 개입되는 경우에 주로 나타난다. 단락6의 행적이 인용되는 소설로는 <육미당기>와 <구운몽>이 대표적인 작품이며, 실제로 단락6의 내용은 12세기 중국에서 회화적으로 재현되기도 했다.³⁾ 이처럼 곽분양의 전기적 일대기를 구성하는 각각의 사건은 특수한 선택의도에 따라 조선시대 역사적 기록과 문학 장르 그리고 회화 속으로 수용되면서 지속적으로 재생산된다.

2.2. <곽분양전>의 이본

<곽분양전>은 필사본, 판각본, 활자본의 형태로 존재한다. 현재까지 확인된 필사본 가운데 대표적인 판본은 계명대본이다.⁴⁾ 계명대본은 落帙

2) 신선희, 「<곽분양전> 연구」, 『장안논총』 15, 1995, 37-39면.

3) 단락6이 함축하고 있는 사건을 회화적으로 재현한 대표적인 작품은 이공린(李公麟, 1054-1105)의 <郭子儀單騎降虜圖>로 현재 대만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정영미, 조선 후기 <곽분양행락도>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1999, 11면. 이와 함께 단락6의 사건이 소설 속에 명시적으로 언급된 예는 註16) 참조.

4) 조희웅은 총7종의 필사본 이본목록을 제시했지만 현재 확인할 수 있는 필사본은 계명대본이 유일하다. 조희웅, 『고전소설 이본목록』, 집문당, 1999, 33면과 『고전소설 연구보정(上)』, 박이정, 2006, 41면 참조.

本으로 현재 1권1책(총51장본)이 전해지고 있다. 박혜숙은 판각본이나 활자본에 비해 곱자의와 관련된 주변 인물들과 가정 내부의 서술이 풍부해서 사건 진행이 보다 자연스럽다는 점⁵⁾을 계명본의 특징으로 지적했다.

판각본과 활자본은 내용과 체제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판각본은 2권2책, 3권3책, 3권1책의 분권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모두 69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동일하다.⁶⁾ 판각본 가운데 출판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이본은 1920년과 1921년에 한남서림에서 출간된 3권1책과 3권3책으로 구성된 <곽분양전>이다. 그리고 활자본은 1913년 신구서림에서 초판이 발간된 이후로 신구서림(재판 1917년), 경성서적(1926년) 등에서 ‘古代小說 郭汾陽傳’, ‘곽분양전’, ‘빅즈천손 곱분양전’이라는 제명으로 출간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판각본에서 활자본으로 진행되는 일반적인 전개과정과는 상반되는 것인데, 19세기 후반에 판각본이나 필사본 형태의 <곽분양전>이 존재했을 가능성도 재고되어 할 것이다.

3. ‘곽분양’ 소재의 확산과 변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연구는 소설 <곽분양전>의 구조나 의미보다는 ‘곽분양’이라는 인물이 조선시대 문화 속에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어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왕조실록과 같은 역사기록물에서 소설과 같은 허구적 서사물에 이르기까지, 또 가사나 시조와 같은 문학 장르에서 궁중회화와 민화에 이르기까지, ‘곽분양’은 조선후기 문화에 고르게

5) 박혜숙, <곽분양전>연구 — 구성과 인물형상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11-23면.

6) 3권3책으로 구성된 69장본과 2권2책으로 구성된 69장본의 차이에 대해서는 이창현, 『경판방각소설 판본 연구』, 태학사, 2000, 418-421면 참조.

산재되어 있는 일종의 ‘소재’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특정 인물의 문화적 확산과정을 통시적으로 개괄하면서, ‘곽분양’이라는 인물이 함축하는 주제적 요소를 발견하고 그 변화 과정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3.1. 역사기록 속의 곽분양

왕조실록에서 곽분양에 대한 기사를 검색해 보면, 곽분양에 관한 기사는 약 40여 차례 등장한다. 주로 곽분양의 역사적 행적을 인용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는데, 흥미로운 점은 선조와 정조대의 기록이 전체 기사의 반(선조11건, 정조7건) 정도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선조실록』의 곽분양에 관한 기사는 선조25년(1592)에서 37년(1604)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데, 이 점은 임진왜란이라는 전란의 상황이 무장 곽분양의 업적과 긴밀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에서 ‘곽분양’이라는 실존 인물을 인용하는 문맥을 검토함으로써 ‘곽분양’에 대한 인식의 변화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세종17년(1435) 6월18일에 병조에서 무과정식(武科程式)의 수정을 건의하자 세종은 이 문제를 상정소(詳定所)에서 의논하게 하였다. 제조(提調) 황희 등이 그 의논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삼가 원류지론을 상고하옵건대 ... 당나라에서 개국한 여러 장수들이 거의 다 늙어 죽게 됨으로부터 드디어 교관(翹關)·부중(負重)의 선출법을 세웠으나, 얻은 것은 모두 간사하고 사나운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폐단이 묘당에 앉은 사람과 주현에 벼슬하는 사람들이 무기를 잡는 것을 수치로 여기고, 변방을 지키고 들어와 숙위하는 자가 ‘정(丁)’자 한 자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그 폐단을 징계하여 예종이 무거(武擧)의 법을 세웠고, 현종이 군모평원 감임장수과를 더 두었고 또 명손오법과를 더 두었는데, 당시

에 뽑은 선비가 나라에 도움이 없지 않았습니까. 곽자의도 그 과거에서 뽑았는데 나라가 어지러운 때를 당하여 능히 당실(唐室)을 정하였고 ... 법을 세워 폐단이 없는데 얼마 아니 되어 다시 경솔히 고치는 것은 온당치 못할 것 같사오니, 종전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세종실록』 68권, 세종17년(1435) 6월18일)

위 기록에서 황희는 무과시험에서 경사와 사서의 비중을 경감하지는 병조의 건의가 온당하지 못함을 주장하면서, 그 주장의 논거로 곽분양을 언급하고 있다. 황희는 武才에 유능한 자만을 선발해서 생긴 폐단을 지적하고, 안록산·사사명의 난을 평정한 곽분양이 예종과 현종이 제정한 과시를 통해 선출된 인물임을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15세기 문헌에 인용되는 곽분양은 ‘문무를 겸비한 무장’으로 해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무를 겸비한 무장의 표상으로서 곽분양에 관한 기사는 16세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세종19년(1437) 7월19일, 세종은 <장감박의(將鑑博議)>에 실려 있는 장수들의 행적을 모아 책을 만들고 그 발문을 작성하게 하였는데, 집현전 응고 남수문이 쓴 발문에 곽분양은 ‘충의정대(忠義正大)’한 장수의 표본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세종31년(1449) 8월27일 기사와 문종 즉위년(1450) 8월25일 기사에는 ‘백무(百畝)를 몸소 경작함으로써 군사들을 스스로 발 갈게 했던’ 곽분양의 고사가 인용되고 있다. 이 외에도 세조10년(1464년) 8월1일, 성종22년(1491년) 5월7일, 중종38년(1543년) 11월1일의 기사는 곽분양이 무장으로서 수행한 군법, 군정, 군역, 병법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다. 그리고 16세기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경험한 선조대의 기록을 살펴보면, 곽분양은 전란 상황에서 중요한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는 전거(典據)로 인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옛날 당(唐)나라 때 순(巡)·원(遠)은 의병을 일으켰지만 이광필·곽자의의 절제를 받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관군은 관군이고 의병은 의병일 뿐이어서 진격할 때도 같이 진격하지 않고 물러갈 때도 서로 구원하지 않고 있으니, 이렇다면 의병에게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내용으로 아울러 알려서 힘을 합하여 진격함으로써 큰 공을 이루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선조실록』 46권, 26년(1593) 12월3일)

설사 왜추가 강화하려고 나오는 것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상대할 때에 김응서가 어찌 말을 잘 해서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겠는가. 반드시 실수할 것이 분명하다. 혹시 의의의 변이 있을지도 또 모를 일이다. 아니면 김응서가 적의 마음을 외복시킬 만한 곽자의 같은 위명(威名)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려는 것인가. 원수는 이미 가볍게 거사하여 위엄을 손상시켰고 지금 또 이런 일을 꾸미고 있으니, 해서는 안 될 것을 하려는 것은 아닌가? 을 하려는 것은 아닌가? 몹시 염려가 된다. 속히 의논해서 아뢰도록 비변사에 이르라. (『선조실록』 57권, 선조27년(1594) 11월8일)

선조26년 전라도와 충청도에서 일어난 의병을 관군의 지휘계통 아래 편입시킬 것을 요청하는 비변사의 글을 살펴보면, 전란 상황에서 ‘의병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 이유를 ‘곽자의의 절제’를 인용하여 역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선조27년 권율이 김응서를 보내 왜구와 강화하려 하자, 선조는 김응서가 ‘곽자의의 위엄’을 갖춘 인물인지를 반문하면서 왜구의 강화 약속이 속임수임을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록을 통해서 곽분양의 행적은 전란 상황에서 대면하게 되는 군정과 외교적 판단의 전거가 되고 있으며, 곽분양은 모든 무인들의 원형적 표상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⁷⁾ 하지만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이상적인 무장의 표상이었던 ‘곽분양’은 이전 시대와는 다른 문맥 속으로 인용되기 시작한다.

“주역의 곤괘에 말하기를, ‘선을 쌓는 집안은 반드시 남는 경사가 있고, 불선을 쌓는 집안은 반드시 남는 재앙이 있다.’고 하였는데, 임창군(臨昌君)은 소현세자(昭顯世子)의 혈손으로 그 변창함이 옛날 분양에 견줄 만했으니, 적선한 집안이 복을 받고 불선한 집안이 화를 받는 이치가 과연 분명히 증명되었다.” (『숙종실록』 61권, 숙종44년(1718) 3월25일)

위에서 인용한 『숙종실록』의 기록에서 곽분양은 적선(積善)한 가문의 복을 상징하는 인물로 해석된다. 곽분양이 무장으로서 수행한 행적과 업적보다는 그가 분양왕에 봉해지면서 성취한 ‘복록’이 주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이전 시대 ‘곽분양’이라는 이름이 인용되는 전후 문맥이 그의 훈업과 관련된 것이었다면, 18세기에 들어서면서 ‘곽분양’의 삶에서 주목 받는 부분은 ‘복록’과 ‘영화’와 같은 의미소로 변화된다. 『정조실록』의 곽분양 관련 기사는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정조는 영의정 홍낙성에게 내리는 유시와 그의 팔순 귀장연(几杖宴)에 내린 교서 등에서 영의정 홍낙성의 생애를 모든 영화와 복록을 갖춘 곽분양의 생애에 비유한다.

“나라에 가장 소중한 것은 정승과 장수이다. 내가 먼저 장수의 일로 말하겠다. 곽자의는 복장(福將)이고 이광필은 지장(智將)이었다. …… 그러나 벼슬이 한껏 높고 공이 천하를 덮으면서도 일신에 탈이 없고 집안이 온전한 사람으로는 1천3백62년 동안 오직 자의 한 사람 뿐이었다. 그래서 지모가 복의 힘을 덮을 수 없음을 비로소 알았다. 장수도 그러한데 더구나 정승이겠

7) 곽분양이 당시 무인들에게 일종의 역할모델이었음은 다음과 같은 시조에서도 잘 나타난다. 壬辰年 淸和月의 大駕 西巡 訶실 날의/ 郭子儀 李光弼 되오려 盟誓러니/ 이 몸이 不才를 들노 알 리 업서 訶노라/ 이덕일(李德一-1561-1622), <憂國歌> 二十八章 제2장. 이덕일(李德一-1561-1622)은 임진왜란 때 무과에 급제한 인물로 정유재란 당시 의병을 조직해 공을 세운 인물이다. 박을수 편저, 『한국시조대사전』, 아세아문화사, 1992, 3478면.

는가. 경은 백에 한 가지의 흠도 없고 만에 천 가지의 기쁨만 있으니 바로 오늘날의 곽영공(郭令公)이다.” (정조실록』 37권, 정조17년(1793) 6월22일)

오직 경은 충(忠)·정(貞)의 세업(世業)에다 정혜(靖惠)의 가성을 지녀 지체와 명망은 아름다운 영화를 계승하였는데 …… 한 사람의 신하가 머리가 희도록 변함이 없는 마음으로 20년 동안 국가와 집안을 태평하게 하였으며 본래부터 부귀하여 부귀를 누리니, 당나라 중서 24고에서 곽분양이 영화와 복록을 온전하게 겸하고 …… 보통 사람의 칠순도 오히려 옛날부터 드물다고 일컫는데 영의정의 80나이가 어찌 국가의 영광이 되지 않겠는가?(『정조실록』 46권, 정조21년(1797) 4월24일)

영중추부사 홍낙성이 졸하였다. …… 향년 81세였고 자손이 모두 번성하였으니 오복(五福)이 모두 갖추어짐이 근세에 드문 바였으나 전교하기를 “병이 났다는 말을 이제 막 듣고는 쾌차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부귀한 집에서 태어나 벼슬길에서 장성하였고 대부로서 늙었으니 공신이 되어 조정에선 것이 55년이었다. 장수를 누렸고 지위는 영의정에 올랐는바, 온갖 복이 온전히 갖추어져서 한 가지 일도 부족한 것이 없었다. …… 복록을 누릴수록 더욱 겸손하였고 충애를 받을수록 걱정스러운 듯하니, 사람들은 한(漢)나라의 석분(石奮)이나 당(唐)나라의 분양도 그와 짝이 되지 못한다고 하였다.” (정조실록』 50권, 정조22년(1798) 12월30일)

18세기 후반 『정조실록』에 곽분양이 인용되는 문맥은 모든 것을 온전히 갖춘 한 개인의 영화와 복록이라고 할 수 있다. ‘오복’, ‘장수’, ‘시종여일한 복록’과 같은 어휘들이 곽분양을 설명하는 언어인 것이다. 武人으로서의 업적이 선택적으로 강조되던 이전 시기의 기록과는 달리, 18세기 후반 곽분양은 현세적인 영화의 극치를 상징하는 이상적인 인물모델로 정립되고 있다. 18세기에 이르러 곽분양과 관련된 기사는 그의 현세적 복록

과 영화를 강화하는 양상으로 변모되며, 이러한 변화는 조선후기 회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산된다.

3.2. 회화 속의 괘분양

15세기에서 18세기에 이르기까지 괘분양과 관련된 기사의 내용은 괘분양에 대한 해석이 ‘무장의 훈업’에서 ‘복록의 상징’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헌 기록에 따르면 한국회화사에서 ‘괘분양’이 회화의 소재로 등장한 것은 대략 18세기 초반으로 추정할 수 있다.⁸⁾ 하지만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괘분양행락도>라는 병풍화이며, 제작시기도 19세기 초반에 제작된 것이다. 조선시대 회화뿐만 아니라 중국 회화에서도 괘분양을 소재로 한 초상화에 대한 기록은 확인 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병풍화 형식이 ‘괘분양을 회화적으로 표현한 유일한 장르’라고 할 수 있다.

『嘉禮都監儀軌』의 기록에 따르면, <괘분양행락도>가 최초로 사용된 궁중행사는 1802년 순조와 순원왕후의 가례(嘉禮)였으며, 이 당시 <괘분양행락도>는 별궁용 8첩 병풍의 형태로 제작되었다. 17~18세기 왕실 가례에는 주로 十長生, 牧丹, 蓮花 병풍 등이 사용되었지만, 19세기 초반에는 왕실 행사와 의례에 <괘분양행락도>가 장엄용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가례도감의궤』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1802년부터 1906년까지 궁중 가례용으로 <괘분양행락도>가 8회에 걸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⁹⁾ 이 뿐만 아니라 규장각 근무일지인 『內閣日曆』에는 1834년(순조34

8) 숙종은 <題郭子儀行樂圖賜世子>와 <題郭汾陽行樂圖> 두 편의 제화시를 남겼는데 현재 이 그림은 확인할 수 없으며 일종의 축자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영미, 앞의 논문, 27-28면.

9) 이성미, 「규장각소장 조선왕조 가례도감의궤의 미술사적 고찰」, 『규장각소장 가례도감의궤』, 한국정신문연구원, 1994, 79-88면.

년)과 1873년(고종10년)에 차비대령화원제(差備待令畫圓制) 祿取才의 畫題로 <唐郭子儀行樂圖>와 <郭汾陽百子圖>가 출제되었다는 기록이 있다.¹⁰⁾

현재 전해지는 <곽분양행락도>는 8폭 또는 10폭의 병풍화로 비단 위에 세밀한 필치와 농후한 채색으로 그려진 것들이다. <곽분양행락도>의 전체 화면은 크게 3부분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부분(상단)에는 조감적인 시점에서 포착한 궁궐 같은 집과 그 안에 있는 아이들과 여성들이 묘사되어 있다. 호화로운 건축물 내부에서 곽분양이 성취한 복록을 향유하는 자손들의 모습이 담



<곽분양행락도>(8폭, 각143.9×52.7cm)

겨 있는 것이다. 두 번째(하단 우측)는 연회가 열리는 장면이다. 구름, 학, 불로초와 같은 상서로운 이미지에 둘러싸인 화면 중앙에서 곽분양이 무희들의 춤과 연주를 감상하고 있으며, 그 좌우에 서서 관복을 입고 연회를 지켜보는 8명의 아들과 7명의 사위들은 자손의 번성과 현달을 나타낸다. 마지막 부분(하단 좌측)에는 연못 위의 정자에서 바둑을 두고 있는 사람들과 연회에 참석하러 온 사람들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현존하는 <곽분양행락도>는 대체로 이와 같은 구성과 배치를

10) '差備待令畫圓制'란 도화서 화원 중 일부를 선발하여 국왕과 관련된 도화 활동을 전담하게 했던 제도. 강관식, 「조선후기 규장각의 차비대령화원제」, 『潤松文華』 47, 1994, 96면.

갖추고 있다. 현세적인 복록과 영화를 연회 장면을 통해 회화적으로 재현한 것이 바로 궁중의 <곽분양행락도>라고 할 수 있다.¹¹⁾

이처럼 궁중 가례에 쓰인 <곽분양행락도>는 18세기에 생겨난 ‘곽분양’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민화로 그려진 <곽분양행락도>에는 궁중 가례에 쓰인 행락도와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이 존재한다. 이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곽분양행락도>와 유사한 쓰임을 가진 <백동자도>¹²⁾와의 결합이다. 궁중회화와 달리 민화로 제작된 <곽분양행락도>에는 놀이를 즐기는 백동자에 대한 묘사가 두드러진다. 이 점은 당시 민간에서 곽분양이 자손의 번성과 현달을 뜻하는 ‘백자천손(百子千孫)’의 상징으로 해석되고 있음을 뜻한다.

민화로 제작된 <곽분양행락도>의 표현방식은 궁중 회화와 여러 가지 면에서 구별된다. 민화에서는 인물과 사물이 부각되면서 공간이 축소되고 있으며, 다양한 기물과 연회도 간략하게 처리되어 있다. 그리고 무희들의 춤사위도 과장된 동작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동자들의 노는 모습이 확대되어 있다는 점이다. 곽분양이 연회를 즐기는 화폭 좌측으로 나비잡기, 관리행차 등과 같은 놀이 장면이 연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1) 궁중 가례에 쓰인 <곽분양행락도>의 제작과정에는 당시 도화서 화원이었던 金得臣(1754~1822)이 참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영미, 앞의 논문, 24면.

12) <백동자도> 역시 18세기 후반부터 왕실의 행사에 쓰였으며 왕실 자손의 번성을 기원하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19세기 초반부터는 궁중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혼례와 치장용 병풍으로 사용되었다. 8폭 구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사계절의 추이에 따른 8가지 아이들의 놀이를 담고 있다. 김선정, 조선후기 百子圖 연구, 『미술사학』 18, 2004, 10-17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종10년(1873년) 녹취제의 화제가 <곽분양백자도>임을 고려할 때, <곽분양행락도>와 <백동자도>의 도상적 결합이 19세기 후반에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곽분양행락도>(부분도, 8폭 각71.5×42cm)

궁중에서 사용된 <곽분양행락도>가 도상의 순수함을 유지한 것이라면, 민간에서 유통되던 <곽분양행락도>는 동자들의 놀이 장면이 확대되면서 ‘백자천손’이라는 자손에 대한 염원을 강화하는 기복적인 장식물로 변모한 것이다.¹³⁾

이러한 변모는 조선 후기 예술품에 대한 민간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생겨난 것이다. 19세기 초반부터 궁정용이나 왕실하사품으로 여겨지던 서화가 19세기 중반 민간으로 확산되면서 궁중화와 민화의 도상적 결합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현재 전해지는 민화 <곽분양행락도>는 당시 민간층의 요구에 따라 정형화된 형식으로 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술품의 유통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19세기 중반에는 예술품의 판매에 개입하는 부류와 특정한 장소에서 골동품과 서화가 거래되는 현상이 출현하였다.¹⁴⁾ <한양가>의 내용을 살펴 보면 19세기 중반에 이미 광통교

13) 이처럼 ‘백자천손’이 선택적으로 강화되는 현상은 <明堂歌>나 <夢幻歌>와 같은 가사 장르에서도 잘 나타난다. 빅두산이 험믹 되어 경승지지 되엿세라/ 현무산이 쥬작(산) 되고 좌청룡 우빅호가 역역히 숨겨세라/ 뒤혜는 화운니 다괴봉허고 압혜는 춘슈만스턱이라/ …… 세상 영육을 물나쓰니 석숨에 부귀를 부러허며 곽분양의 빅즈천손을 부러헐가/ 만물이 풍족허여 그릴 거시 업셔쓰니 이 산중 처스 되여 이만 이만 하야고져/ 미양 장식 이만 이만 허여고져/ <明堂歌> 김동욱·김태준 편, 『雅樂部歌集』, 태학사, 1982, 198-199면.

14) 강명관, 조선후기 예술품 시장의 성립, 『조선시대 문학 예술의 생성 공간』, 소명출

를 중심으로 서화시장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곳에서 거래된 그림들은 <백자도>, <요지연도>, <곽분양행락도>, <구운몽도>와 같은 것들이었다.¹⁵⁾

서화에 대한 민간 수요가 확대되고 관의 속박에서 벗어난 화원들의 작품이 상품으로 제작되면서 <곽분양행락도> 역시 대중적인 민화 형식으로 변화된다. 곽분양의 삶이 보여준 다양한 의미소들 가운데 ‘백자친손’이 핵심적인 주제적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민화로 제작된 <곽분양행락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3.3. 소설 속의 곽분양

조선후기 회화 속에 등장하는 곽분양은 한 인물이 이룬 영달과 복록 그리고 가문의 번성이라는 현세적인 욕망의 완성을 표상하는 인물이다. 15세기 역사 기록에서 생성된 무장으로서의 곽분양은 18세기를 거치면서 현세적 영화의 상징으로 변환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가장 잘 수용하고 있는 장르가 바로 조선후기 소설이다. 곽분양이라는 인물을 문학적 소재로 인용하는 고전소설의 대부분은 분양왕의 복록과 지손의 변창함이라는 의미자질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간다. 실제로 <곽분양전>의 마지막 부분에는 <곽분양행락도>가 제작되게 된 이유를 언급하는 부분이 있다.

본국의 나라러 궁전의 오르미 조신을 모와 진하하고 왕비는 너전의 들며 모든 즈질드른 각각 처소를 정하여 머물게 하고 즈군을 봉하여 셔릉군을 숨고 나라를 다스리니 그 귀한 텃즈의 벽음이나 즈손이 만당하여 화락으로

판, 2002, 318-340면.

15) 廣通橋 아래 가게 각색 그림 걸렸구나/보기 좋은 屏風次에 百子圖 瑤池宴과/郭汾陽行樂圖며 江南 金陵 耕織圖며/閑暇한 瀟湘八景 山水도 기이하다/(생략) 이석래 교주, 『풍속가사집』, 신구문화사, 1974, 48면.

소일흐른 턱하의 비길 더 업는지라 왕시 비로소 선산 분묘를 슈축하고 대연
 을 비설혀 샴일을 즐기고 착헌 사름을 더접흐니 턱히 더평하고 사방의 일
 이 업스미 왕이 몸의 곤농포를 낚고 머리의 면유관을 쓰고 손의 빅옥홀을
 쥘여시며 왕비는 홍금단숨을 낚고 머리의 쌍봉잡을 쏘즈시니 지계를 나뉘
 피옥 소리 명낭하고 좌우의 시녀드리 웅위혀여 출납하며 제즈 제손을 거느
 리고 영해 무궁하고 금동 옥네 쌍쌍이 왕니하며 옥인 가량이 슬하의 연유하
 니 기즈현손의 거록흐물 니로 다 기록지 못 흐나 분양왕의 빅즈천손으로 그
 유복흐미 턱하의 업는 고로 흥낙흐는 모양을 그려 후세의 전흐니라(<곽분
 양전> 경관69장본, 하권 21~22장)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후기 소설에서 곽분양은 현세적 인간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모델로 존재하고 있다. 무장으로서 그가 수행한 역사적 사건과 사실 등은 배제되고, 왕의 지위에 오른 한 인간의 ‘영화’와 ‘복록’ 그리고 ‘자손의 번성’과 같은 의미소만이 강화된다.¹⁶⁾ 조선후기 소설에서 역사적 실존 인물 곽분양이 인용되는 작품과 그 문맥은 다음과 같다.¹⁷⁾

16) 실제로 <곽분양전>을 제외한 여타 소설에서 무장 ‘곽분양’의 행적이 인용되는 부분이 전무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곽분양의 군사적 행적이 인용되는 편폭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주로 인용되는 부분은 곽분양이 회홀과 토변을 제압한 사실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곽분양의 행적은 <구운몽>과 <육미당기>에서 언급된다. 언급된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① 황폐 시절의 토변이 회홀노 더브러 빅만 군등이 경스로 범흐는 그제에 왕스의 단약흐미 이에서 심흐더 곽즈의 필마로 도적을 물니치시니 신이 비록 지죄 업스나 수천군을 어더 죽으므로 빠화 도적을 물니치리이다 턱지 본디 양상서의 지조를 등히 녀키시는디라 즉시 명혀여(<구운몽>, 서울대소장본 권2, 61장), ② 簾仙奏曰 雲瓊之言雖善 非計之得者也 兵法曰 先聲而後實 又曰 制於未發之前爲上 往者 汾陽王郭子儀 當北虜之入寇也 以匹馬免胄而進 責以大義 兵不血刃 蕃兵自退 臣請單騎先往 諭以禍福 虜若不服 (<六美堂記> 가람문고본, 제7회).

17) 인용된 작품 외에도 ‘곽분양’이 소재로 인용되는 작품은 <삼설기>, <정을선전>, <유충렬전>, <춘향전>, <금향정기>, <현수문전>, <옥수기> 등이 있다.

승상이 일개 서상으로 지기에 남군을 만나 화관을 덩하고 무은 태평을 일
위니 공명부귀 곽분양으로 더브리 계명하디 분왕은 바야흐로 녹십의 장상을
하였고 소유는 이십의 승상을 하야 전후 상위 누리기 분왕의 이십스고의 디
나고 군신이 혼가지로 태평을 누리니 복녹의 완전하미 진실노 텃고의 업슨
배러라(〈구운몽〉 서울대소장본, 권4, 57장)

츠설 세월이 여류하여 채 장군 부부 나히 칠십이오 즈손이 버렐하미 그
오복이 가히 곽분양을 쓰을지라 티극비리는 천도 순환지니미 장군 부부 녹
인이 뜬득 일조의 천궁 요지로 도라가니 그 즈손 등이 불의의 부모를 쌍실하
미 천디를 부르지저 잇통하니 그 경상을 참아 보지 못홀너라(〈옥주호연〉
경판29장본, 28장)

이윽고 어제 상왕이 니르러 소공기 뵈고 좌우를 도라보니 십쇠 즈포옥디
로 피섯고 말석의 쇼년 팔십여인이 되셔시물 보고 크게 괴특이 너겨 흡신
치하 왈 “과인이 선성 적덕을 아란지 오러더니 이제 진왕 십인이 도당디신
으로 즈포오시 빛나고 제손 빅여인이 기기히 명주갓트니 비록 석일 곽영공
의 복과 순시 팔놓이 괴특하나 명공의 복과 제손의 풍치는 맞지 못하리로쇼
이다.”(〈소현성록〉 서울대소장본 권21, 116장)

츠레로 남취녀가하니 당 부인의 장즈 성훈은 니부상셔 채란의 녀를 취하
고 츠즈 성열은 디스도 덩산의 녀를 취하고 삼즈 성협은 시랑 유신의 스희
되고 녀은 호위공신 강성의 머느리 되고 위 공주의 즈 성희는 티상경 너담
의 스희 되고 츠즈 성훈은 공부상셔 녀황의 스희 되고 주시의 즈 성연은 병
부낭중 송진의 녀를 취하여 각각 명문 거족의 연혼하니 기기히 일디 군직오
일세 숙녀라 또한 쇼년 등과하여 각각 벼슬이 지상의 거하니 부귀 작녹이
일세를 움죽이미 기세헌 힝낙이 곽분양을 압두홀너라 (〈조웅전〉 경판30장
본, 29장)

세월이 흘러 또 십여 년을 보내니, 금성공주는 5남3녀를 낳고, 옥성공주는 4남2녀를 낳고, 설부인은 7남5녀를 낳고, 추량은 6남2녀를 낳고, 설량은 5남5녀를 낳고, 춘량은 8남5녀를 낳으니, 모두 남자는 기린 같고 여자는 봉새와 난새 같아, 진실로 '눈에 닿는 것은 아름다운 옥이며, 뜰에 가득 핀 지란이라'는 말과 같았다. 자손의 왕성함과 부귀의 지극함이 곽분양이라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육미당기> 가람문고본, 제16회)

조선후기 소설에서 '곽분양'이 인용되는 지점에 수반되는 서술과 묘사는 분양왕의 복록과 자손의 번성함에 집중되어 있다. 영웅적인 행적을 보인 주인공의 부귀공명이 곽분양에 견줄만한 것임을 말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곽분양은 현세적인 부귀영달의 표상이며, 입신양명과 기문의 창달이라는 중세적인 개인의 이상을 보여주는 인물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후기 소설에서 주인공들이 추구하는 욕망은 바로 '곽분양'이라는 실존 인물의 행적과 욕망을 모방하고 있는 것이며, 곽분양은 이들의 역할모델로 정립되어 있는 것이다.

조선후기 소설에서 '곽분양'은 소설 속의 주인공들의 삶이 도달하는 최종 사건이며, 이들이 성취한 영달을 인증 받는 은유적 표현이기도 하다. 이처럼 조선후기 문화에서 곽분양이 복록의 표상이자 현세적 욕망의 성취를 기늠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는 점은 다음과 같은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상이 이르기를, “영중추부사(정원용鄭元容)의 건강은 어떠한가?” 하니, 정범조가 아뢰기를, “다행히 편안하게 지냅니다.” 하였다. …… 홍순목이 아뢰기를, “신이 올 정초에 이미 아뢰 바가 있습니다만, 국조의 90세를 산 대신 세 사람 가운데 이 대신이 복력을 가장 완비하였습니다.” 하자 …… 홍순목이 아뢰기를, “이 대신은 복록을 누린 것이 많을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오히려 한창이어서 늙지 않은 기상이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곽자의(郭子儀)와 비교하면 어떠한가?” 하니, 홍순목이 아뢰기를, “곽자의는

마음을 쓰며 변란을 겪은 것이 있으나, 이 대신은 조정에 선 지 70년 동안 편안하게 태평성대를 누렸고 수(壽)를 그보다 많이 누렸으니 도리어 이보다 낫습니다.”(『승정원일기』, 고종9년(1872) 11월25일)

고종은 『시전』을 진강하는 자리에서 90의 수를 누리며 대신으로 살아 온 영중추부사 정원용의 복록이 곽분양의 복록에 견줄만함을 말하고 있다. 곽분양이라는 인물의 삶이 조선후기 왕실에서 개인의 복록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⁸⁾ 이처럼 이상적인 삶의 모델로서 ‘곽분양’이 함축한 자질들이 무엇인지 명료하게 보여주는 내용은 고종이 『통감』을 진강하는 자리에서 잘 나타난다.¹⁹⁾

상이 이르기를, “참소와 비방이 갖가지였으나 이 사람에게만 행해지지 않았으니, 곽자의(郭子儀)의 복록과 후덕을 헤아려 알 수 있는데, 어찌하여 이처럼 아름다움을 독차지하였는가.”…… 상이 이르기를, “아들·사위와 여러 손자 등은 집안이 현달(顯達)하여 완전한 복이 이렇게까지 갖추어진 것은 예로부터 드물다.”…… 상이 이르기를 “후한 복록이 이처럼 갖추어지기는 과연 매우 어렵다.”…… 상이 이르기를 “복록과 훈업이 과연 짝이 없으니 당 나라 때의 제일인이라 하겠다.”(『승정원일기』, 고종17년(1880) 11월7일)

이처럼 조선후기에 곽분양은 개인의 삶을 평가하는 총체적인 지표로 기능한다. 무장으로서의 훈업을 쌓아 현세적인 복록을 이루고, 그 자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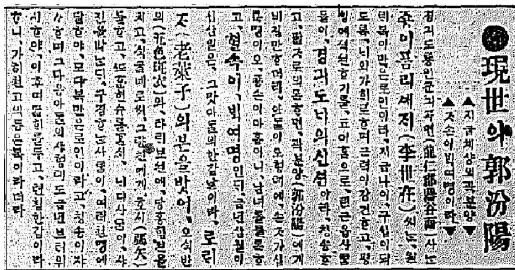
18) 고종은 같은 해 12월23일, 동래 정씨 문중에 정승을 지낸 사람의 수가 15인이며, 혼인한 지 60년이 넘어 회혼례를 한 자가 많다는 점을 들어 ‘복록의 조건’이 무엇인지 언급하고 있다. 『승정원일기』, 고종9년(1872)

19) 1872년부터 1880년까지 『승정원일기』의 기록과 1873년(고종10년) 祿取才의 畫題로 <곽분양백자도>가 출제된 점 그리고 1882년(고종19년) 궁중가례에 <곽분양행략도>가 사용되었다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곽분양’이라는 인물에 대한 고종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번성하여 모두 현달한다는 내용이 바로 ‘곽분양’이라는 인물 소재가 발산하는 문화적 가치인 것이다. 곽분양의 행적은 [훈업-복록-후덕-자손의 번성과 현달]이라는 하나의 서사적 연쇄체를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서사적 단위에서 발현되는 주제적 요소가 조선후기 소설과 회화에 투영되고 있는 것이다.

<곽분양행략도>가 조선후기 서화에 대한 민간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민화풍으로 변이되는 과정처럼, 조선후기 소설에서 영웅들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곽분양의 행적은 점진적으로 세속화되는 과정을 밟아 나간다. 개인의 복록과 자손의 번성이 세속적인 사회적 맥락으로 전이해 가는 현상은 1910년대 신문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3.4. 신문기사 속의 곽분양



“현세의 곽분양,” <매일신보> (1912.05.31.)

1912년 5월 31일 <매일신보> 3면에는 “현세의 郭汾陽”이라는 제목의 흥미로운 기사가 실린다. “지금 세상의 곽분양, 즉손이 빅여명이라”

는 부제가 지시하는 바와 같이, 이 기사는 곽분양과 같은 복록과 자손의 번성함을 이룬 개인의 삶을 소개하는 내용을 실고 있다.

기사의 내용은 경기도 용인군 기곡면에 사는 이세재(李世在)라는 사람이 나이 90이 되도록 내외가 해로하며, 다른 이들에게 적선하기를 좋아해서 인근 사람들이 현세의 곽분양이라 칭송하고, 아들 5형제, 손자 16명,

증손 9명을 포함한 혈속이 백여 명에 이르며, 금년에 장남이 회갑을 지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개인의 복록과 후덕함 그리고 자손의 번성이라는 관분양의 복록이 세속적인 맥락에서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1915년 3월13일 <매일신보> 3면에도 “금세의 관분양”이라는 기사명으로 유사한 내용이 실려 있다. 경남 통영군의 박태범씨의 조부모가 90의 나이로 회혼례를 지냈으며, 건강하고 재산이 많을 뿐만 아니라 아들 9형제가 모두 번성하여 인근 사람들의 평판이 좋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매일신보>에 기록된 관분양 관련 기사는 1910년대 신문독자층의 일상 속에서 ‘관분양’이 소통되는 사회적 맥락을 보여주고 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관분양의 삶은 보다 세속적인 맥락 속에서 소통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두 건의 관분양 관련 기사는 당시 <매일신보>의 편집의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1911년 12월17일자 1면에서 <매일신보>의 편집진은 “독자에게 취미를 감케 하는” 새로운 편집과 신문 콘텐츠의 확충 방안을 제시한다. 그 대표적인 방안은 바로 ‘독자투고란’의 신설이었다. 그러나 독자투고란에 실린 글은 대부분 주변에서 듣고 본 소문, 풍기문란의 사건, 신변잡기적인 것들이었다. 여기에 지역민들의 요구를 수용한 흥밋거리가 더해지면서 1912년 이후로 <매일신보> 3면의 내용은 가정 중심의 신변잡사로 편집되게 되었다.²⁰⁾

1912년과 1915년 <매일신보>에 실린 관분양 관련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복록과 장수 그리고 자손의 번성함을 경험한 이들에게 관분양은 자신들의 삶과 등가적인 비유물인 것이다. 이 점은 조선후기 문화에서 관분

20) 이영아, 1910년대 <매일신보>연재소설의 대중성 획득과정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23, 2007, 63-64면 및 전은경, 1910년대 <매일신보> 소설 독자층의 형성과정 연구, 『현대소설연구』29, 2006, 114-117면 참조.

양을 수용하는 태도와 동질적인 것이다. 하지만 ‘곽분양’이 소통되는 사회적 맥락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10년대 <매일신보> 3면에 실리는 ‘곽분양’은 지역민의 흥미를 수용하기 위한 신변잡사의 한 형식으로 소통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20세기 초반 곽분양은 보다 세속화된 사회적 맥락에서 재생산되면서 개인적인 복록과 자손의 번성을 상징하는 관습화된 약호로 존재하게 된다.

4. 결론

15세기 역사 기록물에 20세기 초반 신문기사에 이르기까지 ‘곽분양’과 관련된 자료를 검토하면서 그 통시적인 변화과정을 기술해 보았다. 15세기 역사 기록물에서 발견되는 곽분양은 진정한 무인의 표상이었다. 곽분양은 주로 군법과 병법에 관련된 문맥 속에 인용되면서 무장이 갖추어야 할 덕목과 자질을 보여주는 인물로 해석되고 있다. 이후 17세기를 경유하면서 곽분양은 제후왕의 영화와 복록을 상징하는 인물로 변모된다. 곽분양을 인용하는 문맥이 무장의 업적에서 제후왕의 복록으로 전이되는 것이다. 그리고 ‘복록’이라는 의미소는 궁중에서 <곽분양행락도>가 제작되는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상징적인 의미 체계로 정형화되고, 이 상징성은 19세기에 이르러 민화와 소설을 통해 민간으로 확산되기 시작한다.

19세기와 20세기 초반 곽분양 소재가 민간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가문의 번성과 후손의 현달을 함축하는 백자천손 모티프가 부가된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르면 곽분양이라는 인물 소재가 발현하는 복록과 백자천손의 상징적 의미가 궁중회화와 민화, 소설, 역사적 기록, 신문에 이르기까지 공식적으로 확산된다. 이런 점에서 ‘곽분양’은 조선후기 회화와 서사

기록물간의 상호교섭 양상과 상동성을 확인할 수 있는 문화적 약호로 기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관식, 「조선후기 규장각의 차비대령화원제」, 『濶松文華』 47, 1994, 96면.
- 강명관, 「조선후기 예술품 시장의 성립」, 『조선시대 문학 예술의 생성 공간』, 소명출판, 2002, 318-340면.
- 김선정, 「조선후기 百子圖 연구」, 『미술사학』 18, 2004, 10-17면.
- 박혜숙, 「〈곽분양전〉연구 — 구성과 인물형상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1-108면.
- 신선희, 「〈곽분양전〉 연구」, 『장안논총』 15, 1995, 37-39면.
- 이석래 교주, 『풍속가사집』, 신구문화사, 1974, 48면.
- 이성미, 「규장각소장 조선왕조 가례도감의궤의 미술사적 고찰」, 『규장각소장 가례도감의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79-88면.
- 이영아, 「1910년대 <매일신보> 연재소설의 대중성 획득과정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23, 2007, 63-64면.
- 이창현, 『경관방각소설 판본 연구』, 태학사, 2000, 1-607면.
- 전은경, 「1910년대 <매일신보> 소설 독자층의 형성과정 연구」, 『현대소설연구』 29, 2006, 114-117면.
- 정영미, 「조선후기 <곽분양행락도>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1999, 1-142면.
- 조희웅, 『고전소설 이본목록』, 집문당, 1999, 1-907면.

ABSTRACT

General Kuo Tzu-i(郭子儀) : Portraits of a Military Figure in Korean
Traditional Culture

Choi, Kyung-Hwan

This study explores how the Chinese general Kuo Tzu-i (697-781 A.D.) was represented in various cultural media throughout the Chosŏn Dynasty. Lionized in numerous literary and art works, General Kuo was an extraordinarily protean subject matter for all genres, ranging from the royal court annals to fictional narratives. On the basis of various source materials that date from the fifteenth to the twentieth century, this study reconstructs the cultural persona of Kuo Tzu-i in the Chosŏn context.

Key Words Kwak Bunyang(郭汾陽), KwakbunyangHangnakdo(郭汾陽行樂圖), Role Model, Baekjachŏnson(百子千孫), Royal Court Annals(王朝實錄)

논문투고일 : 2008. 11. 24
심사완료일 : 2008. 12. 4
게재확정일 : 2008. 12. 12